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사회의 위기

1918년 스페인 독감은 2년 동안 5,000만명의 목숨을 빼앗은 역사적인 독감이었다. 하지만 2019년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확산 이후 1년만에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확진자를 초래해, 현 시각 약 9천만명의 확진자를 발생시켰다. 코로나는 발전된 기술과 산업을 초월할 만큼 건잡을 수 없이 확산됐고, 코로나19의 확산은 우리 삶에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특히 전 세계의 경제와 교육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대부분 실내에서 단체로 진행하는 모든 활동이 제한되면서 사람들은 흔한 카페나 영화관 조차 가지 못하게 됐다. 교육시장도 마찬가지다. 한 교실에 앉아 수업을 듣는 것은 감염에 취약한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학생들의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학교 등교를 금지하고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침을 시행했다. 하지만 비교적 방역에 대한 의무성이 없는 국가에서는 학교에서 수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8월 미국은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여러 지역의 학교에서 수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사례를 보여주기도 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전 세계 190개국 이상의 학생 인구 94%인 약 16억 명의 학습자들이 코로나19의 위기로 인해 교육기관 폐쇄로 인한 영향을 받았다. 현재 35개국에서는 전국적으로 교육기관이 문을 닫았다.

UN 사무총장 정책 브리핑에 따르면, 유치원 교육부터 고등 교육까지 약 2,500만명의 학습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휴교 이후 같은 해에 학업을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한다. 해당 정책 브리핑에서는 교육 재정 지원을 보호하고 그에 따른 영향력을 조정해야 하며,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시스템의 회복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전세계적으로 학습자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자. 정부가 기초학력으로 보장하는 교육기관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정부의 철저한 방역과 방역지침으로, 코로나19가 다소 완화되었을 때 등교를 해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사립대는 방역의 테두리에 간신히 걸쳐 있는 상태다. 사립대는 비교적 자율적인 교육과정 때문에 기본적인 학생 통제가 어려울 뿐더러, 확진자를 추적하기도 어려운 환경이다. 게다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역이라는 재정 부담이 생기면서,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면서 학내 방역처리까지 감당해야해 대학의 재정상황은 위기에 빠졌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은 대학만이 아니다. 학생은 학교에 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등록금은 내야하는 처지다. 20학번 신입생은 오리엔테이션부터 종강까지 한 번도 등교를 해본 적이 없는 사태가 발생했지만, 등록금은 여전히 내야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업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되자, 급기야 휴학을 하는 학생이 많아지게 되었다. 정상적인 학습이 어려워 등록금이 많이 부담돼 자신의 학습권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다. 갑작스럽게 수업 시수가 줄어들거나 휴학을 하게 되면서 대학생은 제대로 된 교육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하지만 대학 측 역시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많은 지출이 있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타국의 교육 시장은 어떤 문제를 앓고 있을까? 주로 원격 수업을 진행에 있어서 갑작스러운 원격 수업 진행으로 인한 문제나, 빈부격차로 인한 원격수업 학습의 어려움 등이 있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 대학생 중 약 20%가 기본적인 원격수업을 듣는 데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이미 미국 학부생의 3분의 1이 온라인 강의에 등록된 상태였다. 하지만 인터넷 연결이나 각종 기자재 부족으로 인해 학습 환경에 많은 제약이 있는 상태다. 이에 미국 정부는 약 1억 달러를 재정지원금으로 투입했다. 한국의 경우, 민주당 및 보건복지부 역시 고등교육기관을 위한 별도 지원금을 포함한 긴급 재정지원을 실시했다. 다른 지역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베트남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수업을 실시해야 하지만 학습자의 경제적 배경의 차이가 있어 TV를 통해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전세계의 교육은 급격한 변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고 맞춰가는 것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대학사회의 갈등 종식을 위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조치와 협력이 필요하다.